

2020년 11월 1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역정책과 과 장 장재홍(044-201-2071), 사무관 이재명(2075) / 제공일: 11월 17일 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, H5N8형)가 각각 발생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와 가금육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(11.17.)함
- ◆ 최근 유럽과 일본 등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, 수입 가금류·조류 등에 대한 AI 정밀검사와 함께 신속한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한다고 밝힘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(닭, 오리, 조류 등)와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7일(화)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.

○ 덴마크 정부는 중부 윌란반도에 위치한 라네르스(Randers)市 소재 육용종계 농장(1개소)\*에서 HPAI(H5N8형)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하였음.

\* 약 25,000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모두 살처분 예정임

○ 프랑스 정부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토코르스(Haute-Corse)州 소재 가금류 판매업소(1개소)\*에서 HPAI(H5N8형)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하였음.

\* 판매업소에서 사육중인 거위, 닭 약 200~300 마리에 대해 살처분 예정

□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▲살아있는 가금(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) ▲가금 초생추(병아리) ▲가금종란, 식용란 ▲닭고기, 오리고기 등 가금육·가금생산물 등이다.

○ 현재 덴마크·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수입되어 검역중인 물량은 없음.

□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(10.30.), 영국(11.3.) 그리고 일본(11.6.)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,

○ 수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·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